

美國 圖書館 管見記

崔 貞 泰
〈서울大學校圖書館〉

1.

舊韓末 개화기에 俞吉濬은 일여년 동안 미국을 구경하고 「西遊見聞」이라는 명저를 내었다. 당시만 해도 서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가 발표한 이 저서가 사회 지식층에서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모양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매스·미디어가 발달되어 세계의 구석구석을 안방에서도 환히 들여다 보아 잘 알 수 있는 터여서 채 일년도 못본 미국의 세계를 가지고는 잘 설명하기가 힘들것이다. 그러나 사람마다 느낌이 저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여기에 소개해 보고자 한다.

2.

내가 미국에서 주로 생활한 범위는 캘리포니아주 대학도시 버클리(Berkeley)이다. 여기에 도착한 것은 작년 정월 하순이었다. 이맘때 우리나라에서는 영하의 기온에다 온 산천이 흰눈으로 쌓여있었는데 그곳은 모든 잔디가 새파랗고 가로수가 싱그럽게 푸르름이 더해가며 양지쪽에서는 벚꽃이 막 피려는 참이었다. 아시아재단에 스미양의 안내에 따라 며칠간 그백으로 나를 초대하여준 크라크씨 내외분은 예순이 될까말까한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로서 아들딸을 이미 출가시키고 덩그만 큰집에서 둘이서 지키고 있었다. 그러다가 나와 같은 미국의 초행자나 관심있는 자를 격의없이 초대하여 며칠간 생활하여 주고 탈출무가 되어 준다. 처음엔 이들이 상류층 부자인줄 알았다. 완벽한 가재도구하며 부족함없는 시설을 빈틈없이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장 그들과 가까운 시내를 돌아본 후 그보다 크고 좋은 집을 보고 이것이 소위 미국의 중산층 小市民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잘 살고 있을까? 의문은 곧 풀렸다. 우선은 막대한 지하자원의 덕이라겠지만 두내의가 그렇게 부지런할 수 없다. 열 사흘을 꼬박 관찰하였는데 한가하게 쉬는걸 못보았다. 부인이 두터운 돌보기로 꽃자수를 치고 재봉틀을 돌리는 동안 영간님은 동네 참새를 위한 모이를 주고 이것이 끝나면 그저 휴식하는것이 아니고 음악감상을 겸한 停滯않는 생활을 한다. 그야말로 활력이 넘치는 연속의 과정이다. 이렇고도 못 살리 없다.

스케줄에 따라 그가 맨먼저 안내하여 준곳은 버클리의 小邑의 공공도서관이었다. 藏書 1만여권을 갖춘

깨끗하고 아담한 2층건물인데 직원은 관장이하 8명이라 한다. 장서의 내용은 생각하던 바와 별다를바 없으나 특히 시선을 끈것은 「어린이도서실」이었다. 그것은 全室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마칩 동네 개구쟁이들이 몰려와 카펫트가 깔린 바닥에 딩굴기도 하고 들어 눕기도 하여 마치 자기네 안방인양 만화를 뒤적이고 있다. 벽에는 그 지방의 발자취를 담은 50년전의 사진과 100년전의 사진 그리고 현재의 사진을 나란히 붙여놓아 자기 마을의 변천사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하였다. 그 옆에 또하나 展示室이 있어 들어가니 조그만 畫廊을 연상케 한다. 그러나 많은 작품들이 모두 벽에 걸려있지 않고 상당수가 책상위에 진열되어 있다. 이유를 물었더니 벽에 걸린 작품과 책상위 모든 것들은 각 가정의 貸出用이라 한다. 알고보니 그림뿐만 아니었다. 많은 레코드판, 녹음테이프등도 2주간 내지 한달간을 집에 가져가서 벽에 걸어두고 감상한 뒤 다음번에 다른것과 다시 교환해 간단다. 한국에서는 대학석사학위논문 한번 빌려가기 품보노총각 장가가기 보다 힘든데 이러한 짜임새있는 도서관 활동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번은 캘리포니아 州立大學 헤이워드도서관에 갔었다. 미국의 어느 도서관치고 친절하지 않은 곳 보지 못했었다. 대개 손님이 와서 문앞에서만 서성대어도 어디서인지 직원이 나타나기 마련,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다. 우리나라의 모든 도서관인들이 진작 이것부터 배웠더라면 한국의 圖書館界는 벌써 먼모가 달라졌지 않나 싶다.

면담을 마치고 카운트를 돌아 밖으로 나오는 때였다. 여기 대부분의 도서관은 人力을 아끼는 행정으로 自動化하거나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신하여 준다. 여기의 출입문도 수위를 대신하는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다. 문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열쪽에서 부자소리가 동시에 났다. 직원이 달려오더니 “체크하지 않은 책이 있느냐?”고 묻는다. 처음엔 무슨 뜻인가 하였는데 즉 정상적인 貸出行爲를 않고 몰래 가지고 가는 책이 있느냐는 뜻이다. 들고 있던 종이가방을 열어 보였다. “보시다시피 메모노트와 소형 카메라 한개 뿐이요” 그녀는 빙그레 웃으며 범인은 바로 이 카메라라고 했다. 하도 의아해서 내용을 알고 본즉 이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56만권의 도서

하나하나 모두 특수 마그네틱 금속성 북·포켓을 부착시켜서 모든 도서는 정상으로 室外搬出되지 않을때는 여기 자동문에 체크당하여 통과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다. 이때 내 작은 소유물이 메카니즘앞에 어이없이 차단당하고 만것이다.

3.

캘리포니아大學校, 버클리는 아홉개 종합대학중에 宗家格이다. 1896년에 창설된 대학으로 100년이 훨씬 지난 학교로서 학생수가 29,000명(캘리포니아 전체의 학생수는 115,000명)으로 버클리가 만형이 되고 UCLA(캘리포니아대학, 로스앤젤리스)가 둘째형쯤 되는 셈이다. 9개 대학이 각각 農, 醫學을 특수한 전통을 저마다 지니고 있는 名門大學이라 하겠다. 이 대학의 1년(1974년기준) 예산은 10억6천만弗(5천3백억원)으로 당시 우리나라 정부 전체예산의 近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니 놀랄 수 밖에 없다. 버클리가 갖고 있는 풋·볼 경기장만 하여도 수용인원이 7만명으로 서울운동장의 2배가 넘는다. 이것도 부족하다 하여 인조잔디 그라운드에서 남녀학생들이 全天候 게임을 즐기고 있다.

필자가 탐방한 주요대학*은 거의가 중앙도서관이 分館制度를 채택하고 있다. 하바드가 50여개의 분관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이곳 버클리는 중앙도서관하에 벤크로프트(Bancroft)도서관(일종의 서울대奎章閣圖書室 성격임)을 위시하여 모핏트(J.K. Moffitt)學部圖書館, 東亞圖書館(East Asiatic Lib.)등 22개의 도서관실과 8개의 연구소도서관 등 도합 30개의 도서관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 연간 도서관예산은(1975년도기준) 8백9십만弗(44억5천만원)으로 도서관직원 543명(專門司書 165명, 非專門司書 289명, 學生臨時職 89명)을 가진 거대한 도서관이다. 총장서는 460만권으로 하바드 920만권의 절반이나 미국전체의 랭킹을 따져도 하바드, 예일, 컬럼비아 다음으로 엄청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학이 가지고 있는 新刊雜誌數는 96,000종으로 하바드(98,000종)와 맞먹는 숫자이다. 그도 그럴것이 이 대학이 특히 강한 분야는 수학, 물리, 화학분야로서 이 방면의 노벨 수상자를 무려 11명이나 확보하고 있어 이분야 세계 전체 수상자 16명중 3분의 2를 가지고 있어서 도서관자료가 빈약할래야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다. 그러자니 도서관은 항상 생동하고 있어야 한다. 언제나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 반면에 도서관의 來訪者도 항상 줄을 잇는다. 매일 물밀듯 밀어 닦치는 방문객을 위해서 전담직원이 주방장 그릇 쟁기듯 해치워도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부득이 내방자 탐방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오전, 오후 각 1시간씩 안내 스케줄을 짜 놓고 있다. 이 프로그램중의 하나로 대학도서관을 소개하는 12분짜리 8mm 컬러영화 상영이 있다. 한국식에 맞춰 館長이 인사말을 하고 課長이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틀부터가 코믹한 맛이 있다. 「당신이 이 도서관을 이용치 않고선 영웅이 될수 없어요(You don't have to be a

hero to use the U.C. Library)」라는 자막이 나온후 현재 미국에서 한창 인기절정에 있는 「600만불의 사나이」가 飛來하여 도서관 참고실 데스크에 나타난다. 「내가 무엇을 찾고자 하는데 어떻게하면 될까요?」하면 데스크의 參考司書가 무순책을 꺼내어 보여주면 고맙다고 떠난다. 이어서 「특수공작원 소머즈」(그곳에서는 「bionics woman」이란 제목으로 「six million dollar man」과 쌍벽을 이루고 있는 人氣TV 프로그램이다)가 나타나 비슷한 질문을 던지면 전자와 비슷한 대답을 해주고 만일 참고사서의 자료가 없을때 곧 인터폰을 통하여 다른 전문분관(branch)에 연락 곧 해답을 해준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TV의 인기프로그램의 주인공을 등장시켜 도서관 利用案内를 하고 있는데 조금도 격식을 갖추지 않고서 재미있게 어린이라도 쉽게 도서관을 접근할 수 있게끔 만화 스타일로 엮어 소개하고 있다.

그때들의 도서관이용은 도서관담당자의 봉사면 뿐만 아니라 이용자 또한 도서관을 걸석같이 믿고 도서관원 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는다. 夏季放學이 시작되고 서머 스쿨(summer school)이 개강되던 때이다. 「圖書館員과 教授와의 協力」이라는 세미나에 참석하라는 전갈이 왔다. 참고사서실에 의자가 10여개 준비되어 있고 무순책을 20여권 가지런히 책상위에 포개어 두고 있었다. 세미나의 주제를 참고사서 아홉마가 교수 8명을 모아놓고 벌써 시작하고 있었는데 교수가 다음 학기에 가르치는 데는 이러이러한 참고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며 마치 선생님이 학생을 교육시키듯 진행하고 있었다. 가르치는 사서도 신기하였지만 이를 열심히 경청하는 교수의 자세 또한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만이 아닐진대 그렇게 분위기가 진지하지 않을 수 없고 세미나내용 또한 매우 훌륭하였다고 생각된다.

4.

이상에서 보아온 것들은 대부분 筆者의 단편적인 管見일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것은 그들은 전반에 걸쳐 우리보다 앞서고 있다. 봉사자나 이용자의 입장에서나 무엇인가를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있었고 앞으로 그렇게 하려는 저력이 엮 보인다. 프리섹스만 보고, 또 X-rate movie만 보고 전미국을 논하던 안된다. 도서관을 찾은 엄마가 된 어느 학생의 등에는 에기를 짊어지고 앞에는 책가방을 메어져 있다. 그 속에서 빵부스러기를 꺼내 씹으며 카드박스를 열심히 뒤적이다.

나는 감히 말하고 싶다. 미국에서 잘 발달된것은 프리웨이 고속도로만이 아니다. 눈에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는 圖書館制度가 더 잘 발달되었다고.

* ①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② U.C.L.A. ③ Columbia University ④ Harvard University ⑤ M.I.T. ⑥ Stanford University ⑦ N.Y. State University at Albany ⑧ R.P.I.